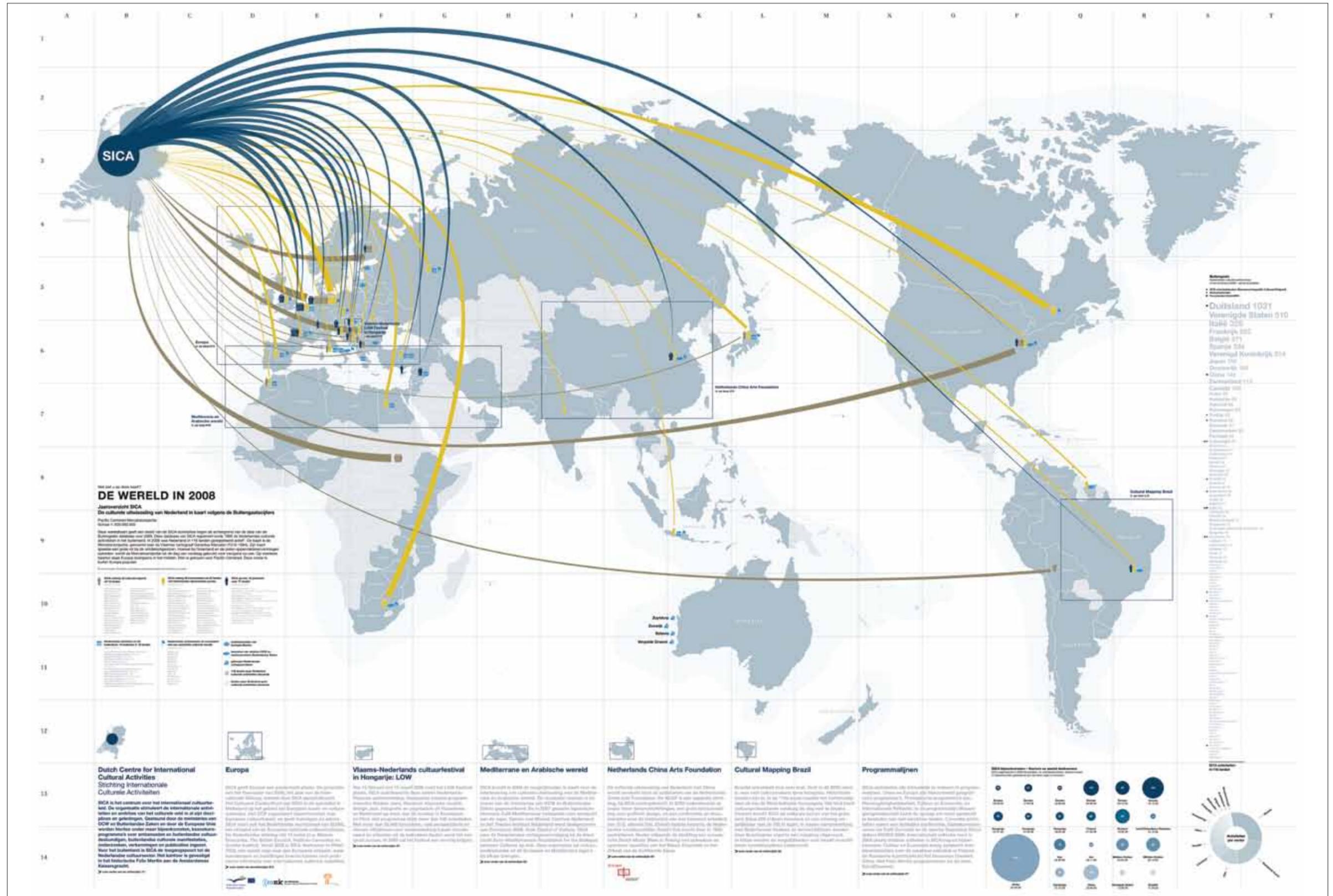


기본과 본질에 접근하는 인포그래픽스

# 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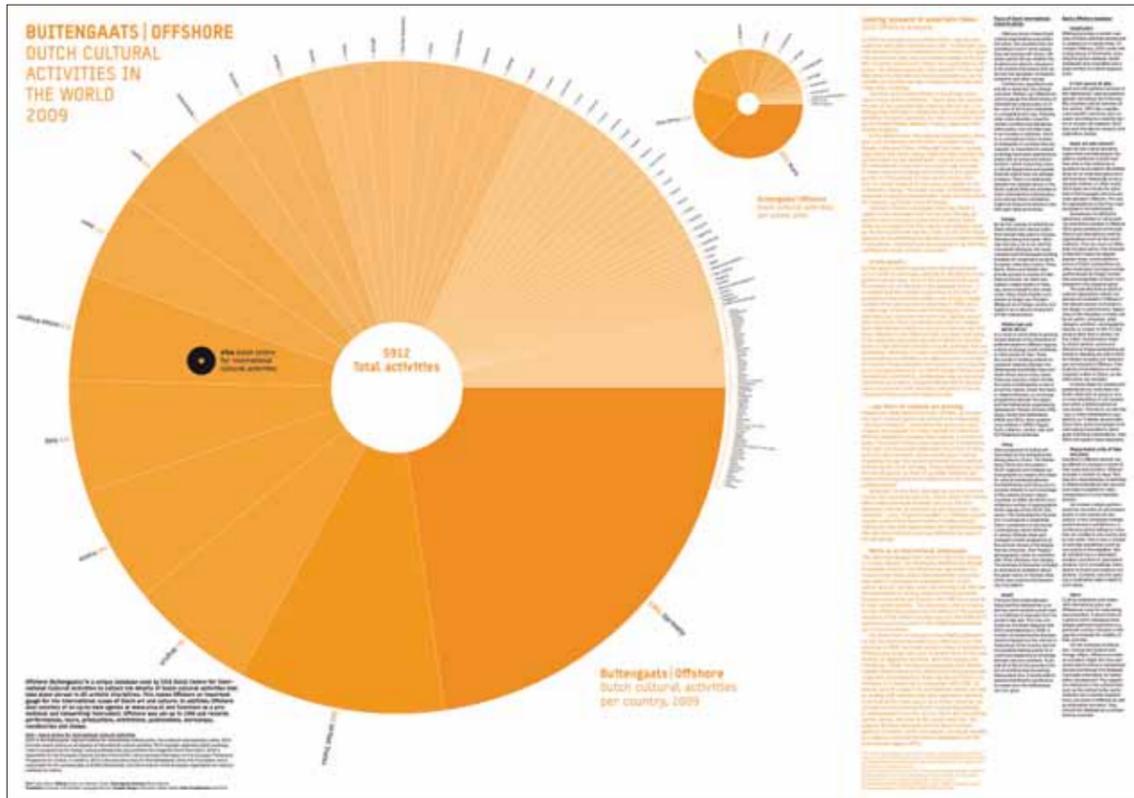
인포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Information Design Studio)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게를린데 쉐러(Gerlinde Schuller)가 이끌고 있다. 원래 독일 출생인 쉐러는 개념적 접근이 두드러지는 네덜란드 특유의 디자인 주위에 친착,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여 2004년에 이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스튜디오 이름에 그대로 쓰고 있는 데에서 기본과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쉐러의 디자인관을 엿볼 수 있는데, 회사 웹사이트명인 '평지로서의 세계(The World as Flatland)'는 복잡한 데이터를 2차원의 시각물로 옮기는 인포메이션 디자인을 은유하며 세상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을 제안한다. 현재 2008년에 새로 영입한 랄프 노르드훅(Ralph Noordhoek)과 함께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전문가들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인포메이션 그래픽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www.theworldasflatland.net](http://www.theworldasflatland.net)



SICA 세계 지도 네덜란드의 국제 문화활동 센터 SICA(Dutch Centre for International Cultural Activities)의 2008년 활약상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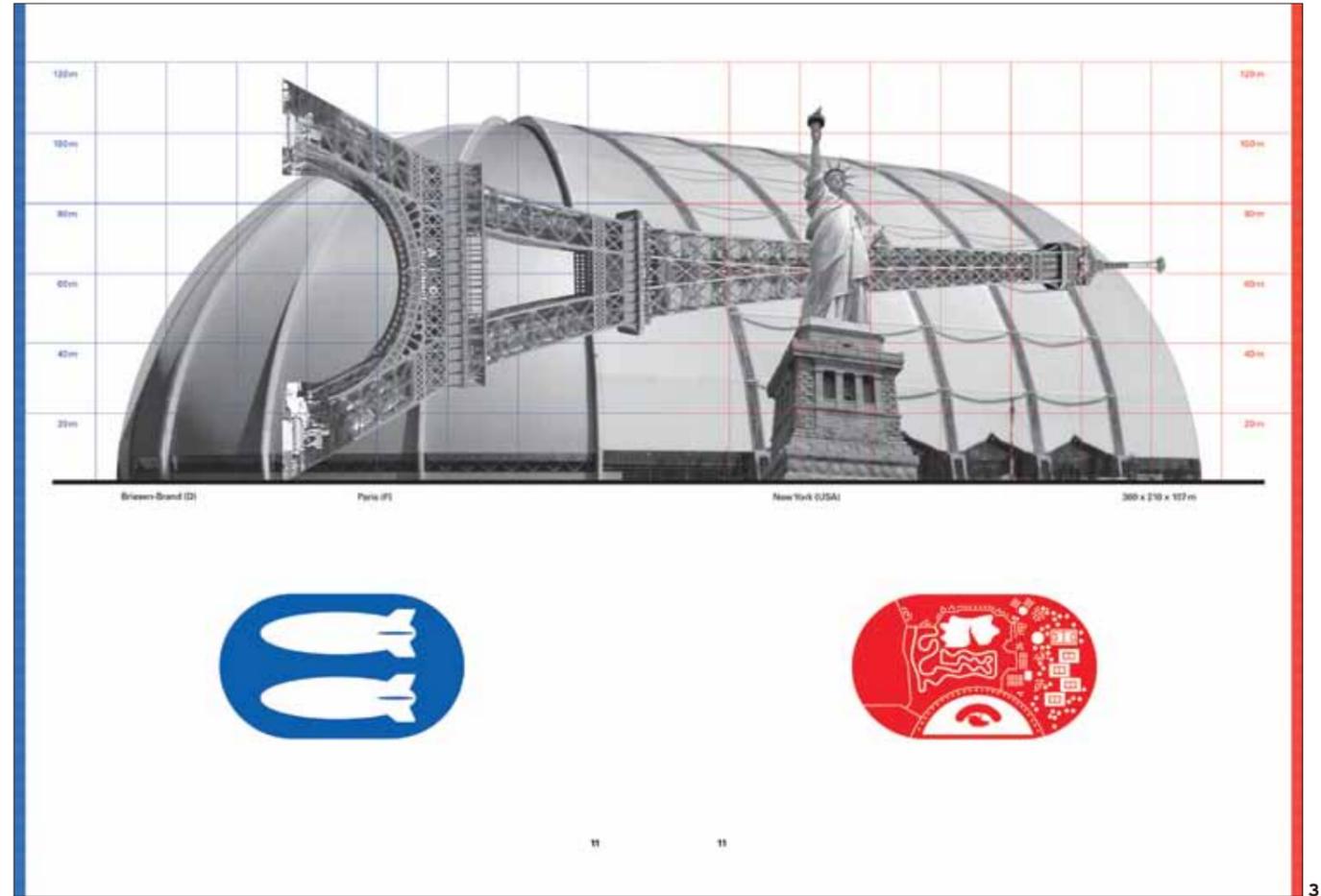


1



2

1, 2 SICA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인포그래픽 네덜란드의 국제 문화활동 센터 SICA를 홍보하기 위해 2010년에 제작한 브로슈어에 게재된 인포그래픽스 작업으로, 해외에서의 활동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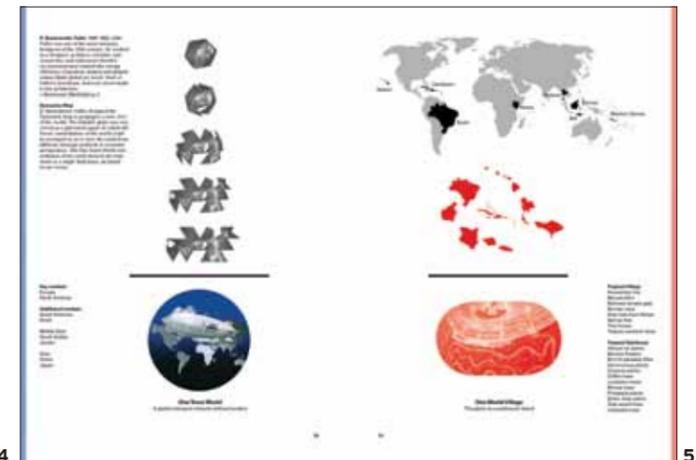


3

3, 4, 5 불가능을 현실로 게를린데 솔라가 2006년에 클라우디아 베버(Claudia Weber)와 함께 퍼낸 공저 <불가능을 현실로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의 내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꿈, 그리고 낙원에 대한 태곳적 염원을 실현시킨 열대우림 인공 리조트 트로피컬 아일랜드(Tropical Islands)와 카르고리프트(CargoLifter)의 사업 전략을 보여준다.



4



5



